

# “러, 하루 1천명씩 사상”...무기부족 우크라이나에 인해전술

### 영국 국방부 2월 추산치...“개전 후 35만5천명 사상” 방어선 약해진 우크라이나에 물량공세·소모전 지속 의지

러시아군이 군사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최전선에서 인해전술식 공세를 펼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은 3일(현지시간) 일일 정보 업데이트에서 지난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거나 다친 러시아군의 수가 하루 평균 983명이라고 집계했다.

DI는 이 같은 추산치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개전 이후 지금까지 전쟁에서 숨지거나 다친 러시아 군인은 총 35만5천명으로 추산했다.

DI는 “일평균 사상자 증가에는 러시아가 물량공세, 소모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명피해를 따지면 비용이 크게 들더라도 그 결과로 최전선 전체에 걸쳐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대한 압박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영국 국방부는 개전 이후 러시아군 사상자 수나 주요 전황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사실로 드러나는 사례가 많았다. 러시아는 이들의 정보가 허위라고 반박해왔다.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최전선에서는 러시아가 화력과 병력의 우위를 앞세운 집중공세로 전략 요충지를 빼앗고 있다.

러시아는 작년 가을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아우디우카를 압박해 결국 우크라이나군의 철수를 끌어



서방의 군사 지원 지연으로 우크라이나가 어려운 한 해를 보낼 수 있다고 전망된 가운데 러시아군이 최전선에서 인해전술식 공세를 펼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소이구 국방장관. /AP=연합뉴스

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아우디우카 점령을 위해 충격적인 인명손실을 봤다는 뉴욕타임스(NYT)는 여러 군사 분석가, 군사 블로거,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의 분석이 뒤따른다.

의 추정을 인용해 러시아가 10년간의 아프가니스탄전(1979-1989년)보다 아우디우카 전투에서 많은 병력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내부에 이 같은 상황을 알리고 비판한 파블로 블로거 안드레이 모로조프는 최근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집중 공세에 조금씩 속수무책으로 밀려나는 형국이다.

서방이 약속한 군사 지원이 지연되고 미국의 추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심각한 포탄 및 군수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아우디우카에서 퇴각하면서 외곽에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일주일 사이에 아우디우카 서쪽 마을 3곳을 점령하고 추가로 최소 1곳 이상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아이티, 갱단 교도소 습격...수천명 탈옥

### 총리 사임 거부 후 갱단 폭력사태 격화

극심한 치안 실패를 겪는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갱단들이 교도소를 습격해 수천명이 탈옥하고 적어도 10여명이 사망했다고 AF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통신은 현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을 인용해 전날 밤 갱단들이 수도인 포르토프랭스에 있는 국립 교도소를 습격했다면서 3천800여명으로 추정되는 재소가 가운데 현재는 100명 정도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국립교도소를 방문한 자사 특파원이 10여구의 시신을 확인했다면서 교도소는 문이 열려있는 상태였으며 안에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아이티 정부도 성명을 통해 경찰이 국립교도소와 다른 시설을 공격한 갱단들을 격퇴하려 시도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교도소 직원과 수감자 등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언론매체인 르 누벨리스트는 공격받은 국립교도소에 유명한 갱단



극심한 치안 불안에 놓인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소소 사태가 심화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두목들과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범들이 수감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때에는 갱단들이 교도소 공격에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드론을 통해 교도소 내부 상황을 정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폭력 사태의 배후는 포르토프랭스 일대 갱단 연합체인 'G9'의 두목으로 '바비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지미 세리지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일 군과 경찰에 아리엘 알리 총리 체포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갱단 세력을 규합해 나라를 '속대밭'으로 만든 장본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연합뉴스

미주 최반국으로 꼽히는 아이티에서는 지난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극심한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갱단 폭력에 따른 치안 악화, 심각한 연료 부족, 치솟는 물가, 콜레라 창궐 속에 행정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지난해 1월에는 이 나라 마지막 선출직 공무원이었던 상원 의원 10명 임기마저 종료되면서 입법부까지 공백이 생겼다.

여기에 지난달 8일 알리 총리가 퇴진을 거부하면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까지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갱단들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연합뉴스

## 말레이 항공기 실종 10주년...교통장관 “수색 작업 계속”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적 항공기 실종 사건 10주년을 맞아 수색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앤서니 로케 교통장관은 전날 MH370 여객기 실종 10주년 관련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해양탐사업체인 오션인피니티와 수색 작업에 대해 논의한 뒤 호주 정부와도 공조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항공 MH370 여객기는 2014년 3월 8일 239명을 태우고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륙해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 인도양으로 기수를 돌린 뒤 갑자기 실종됐다.

당시 비행기에는 중국인 154명과 호주인 6명을 비롯해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프랑스,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 등 14개 나라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 및 호주와 공조해 3년에 걸쳐 호주 서쪽 인도양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다.

지난 2018년에는 오션인피니티까지 나서 재수색했지만 동체와 블랙박스를 발견하지 못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실종 여객기가 고의로 항로에서 벗어났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 中, 영하 80도에도 작동 ‘리튬이온전지 전해질’ 개발

영하 80도 온도에서도 리튬이온전지의 충전과 가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운 전해액이 중국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중국 저장대 연구팀은 최근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배터리 내 이온 운반 방법을 통해 극한의 조건에서도 고에너지 배터리를 작동할 수 있게 했다.

통상 리튬이온전지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넓은 작동 온도 범위, 고속 충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워 저온 환경에서는 사용이 제한돼왔다.

리튬이온전지의 전해액은 유기용매에 용해된 리튬염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전해액은 전지에서 이온 수송을 제한하는 요인이었다.

저장대 연구팀은 미국 연구진과의 협력과 넓은 범위의 온도에서 용매들을 스크리닝하는 4년간의 연구 끝에 플루로아세티트트리올이라는 용매를 사용하는 전해질을 개발했다고 SCMP는 전했다.

네이처에 따르면 전해질의 작은 용매 분자는 리튬이온 주위에 두 겹의 층을 형성하고, 이온이 운반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데 이를 ‘리간드 채널 수송’

이라고 한다.

연구진은 “리간드 채널 촉진 전도 메커니즘은 고에너지 전지가 극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설명했다. 또 새 전해질 설계 원리가 리튬이온전지뿐만 아니라 “나트륨이온 전지나 칼륨이온전지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연구 책임자인 판순린 교수는 “새로운 배터리가 전기차나 항공 등 다양한 범위에 적용될 수 있다”며 “우리는 미래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고 SCMP는 전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기원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부페